

박광수: 구리와 손

Gwangsoo Park: *Copper and Hand*



박광수, <초원>, 2023, 캔버스에 유채, 116.8x91cm

전 시 명: **박광수: 구리와 손**

전시기간: 2023년 11월 8일 (수) - 12월 9일 (토)

전시장소: **학교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50)

학교재 오룸(OROOM)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총 30점 (회화 30점)

:

○ 담 당 신리사 lisashin@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31108-20231209 박광수_구리와 손**

1. 전시 개요

박광수는 198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다. 유년기에 숲과 자연을 사랑했던 소년은 화가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작가 중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광수 작가의 예술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약은 가능하다. 첫째, 박광수 작가는 회화를 통하여 과학과 과학주의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명백히 드러내고자 한다. 과학은 진리를 구성하는 학문이다. 이에 반해 과학주의는 과학에 대한 맹신을 뜻하며, 과학을 위해서 희생되는 사안, 가령 인간과 자연의 희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킨다. 둘째, 세계는 다툼(datum)과 팩툼(factum)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툼은 'deity' 신성(神性)의 어원으로서 신이 선물한 자연과 자연의 이치를 가리킨다. '공장(factory)'의 어원인 팩툼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해서 제작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다툼과 팩툼 사이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야말로 최상의 문명(문화)이며, 우리는 절대로 다툼, 즉 자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작가의 거시적 주제이다. 셋째,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떨어져나와 분리된 존재(ek-sist)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로 이어진 존재(in-sist)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인연과 필연으로 모두가 서로 이어져 있다. 전자를 위하여 고대 동양에서는 천인지제(天人之際)의 개념을 제시했으며, 후자를 위하여 인의예악(仁義禮樂)의 가능과 한계를 설정했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은 《구리와 손》이다. 다소 엉뚱한 조합으로 보이는 두 단어에 실은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다. '구리(銅, copper)'와 '손(手, hand)'은 문명의 시원과 과정에 대한 은유이다. 첫째, 구리의 영어단어 'copper'의 어원은 그리스어 'Cyprus'이다.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이곳은 기원전 9,000년부터 문명을 시작한 곳이며, 기원전 2,500년 전부터 구리 제품(청동기)을 교역한 인류 문명의 요람이다. 박광수가 말하는 구리는 문명의 시작을 의미한다. 키프로스의 청동기와 중국 고대 삼대(三代)의 청동기는 제식(ritual)을 위한 것이었다. 그 속에 신(자연)과 하나가 되려던 염원, 즉 천인합일(天人合一)을 통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자 했던 인류의 바람이 담겨있다.

둘째, 전기는 기술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원천이다. 구리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길[道]이자 그릇[器]이다. 전기라는 에너지의 소통을 통하여 인류는 진일보한 기술 문명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술 문명은 수많은 혜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연을 생명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사물쯤으로 대상화했고, 폭압을 가하다 급기야 파괴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Covid-19 기간에 절실하게 체험했다. 자연이 우리에게 복수로 되돌려준 것이다.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 시 [학고재 제공] 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리는 닥터 코퍼(Dr. Copper)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닥터 코퍼란 구리 가격 흐름으로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데서 유래된 말로써 세계 경제 전반뿐 아니라 원자재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귀추를 읽는 지표로 활용된다. 실제로 구리는 전기·전자·건설·해운·항공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 소재로 쓰이는 만큼 제조업 수요 증감 여부를 잘 반영해 주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공성과 전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으로도 많이 쓰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도 필요하다. 구리는 전 세계에서 각종 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즉, 문명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손을 가리켜 눈에 보이는 뇌라고 말했다. "The hand is the visible part of the brain." 손은 뇌의 연장선이다. 손은 단순히 붙잡고 움켜쥐고 모으는 기능을 넘어서 우리의 온갖 생각과 개념을 실현해주는 최전선 선봉장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작가가 말하는 '구리와 손'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포괄하고 있다. 그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 전시 주제

박광수 작가와 개인전 《구리와 손》

박광수 작가의 그림은 숨이 멎을 정도로 현란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살아왔으며 앞으로 살아갈 삶의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이다. 그 속에 억지로 꾸며낸 것이 있거나 상상을 뛰어넘는 신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이다. 이는 소동파(蘇東坡, 1036-1101)가 가장 아꼈다는 조카 소적(蘇適, 소철(蘇轍, 1039-1112)의 둘째 아들)에게 들려준 말인 "현란지극귀어평담(絢爛之極歸於平淡)"이라는 문장의 뜻과 정확히 일치한다. 예술(시)은 "현란함의 극치로 나아가다가 평범하고 담박한 일상의 이야기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역·계사』의 "근취저신(近取諸身), 원취저물(遠取諸物)"이라는 뜻도, 가까이 내 신변에서 진리를 찾고, 멀리 만물을 통하여 변화의 실상을 체험하여 사유를 펼쳐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박광수 작품의 형식은 세계 유일의 오리지널리티로서 신회화(new painting)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화면에 불어넣고 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현란한 채색과 기운 넘치는 속도감, 짜임새와 무게가 완벽하게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 시 [학고재 제공] 표기 부탁드립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운과 생명력의 에너지는 모든 필치와 터치에 꿈틀거리며 부분과 전체는 불가사의한 조화를 이룬다.

작품 구성에서 미술사의 레퍼런스가 사용됨을 짐작하게 한다. 현대미술에서의 구상적 회화(figurative painting)임에도 산수화의 구성이 보이는가 하면,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회화에서처럼 사물과 환경이 주인공과 일체화되는 형식에 근접한다. 기하학과 수학으로 계산하는 서구의 선원근법(linear perspective)과 달리 산수화는 산속을 거닐며 화가가 온몸으로 느꼈던 풍경의 생생한 생명적 체험을 그린다. 박광수의 회화는 동서양 회화의 정수를 추출하여 화합(종합)해내는 동시에 더 높은 경지로 도약하고 있다. 화면에서 주인공은 숲과 하나가 되며 구리를 추출하는 모습은 문명의 올바른 방향성을 상징하고 있다.

30 대 후반인 박광수는 서울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송은, 두산갤러리 뉴욕 등 국내외에서 열린 중요한 기획전에 출품했다. 학고재와 전속계약을 맺어 최근 수년 동안 중요한 단체전과 개인전을 지속해서 선보였다. 작가는 국내외 미술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 등 미술계 관계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대표적 청년 작가 중 한 사람으로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 작품 소개

박광수(Gwangsoo Park, b. 1984) 대표작



〈작은 산〉

2023

캔버스에 유채

162.2x130cm

서구 회화는 캔버스에 물감을 쌓아 올린다. 물감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박광수의 이 작품은 캔버스에 1차적으로 도포된 물감을 긁어내서 가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도 화면이 가볍지 않다. 무겁고 가득 차 있는 듯하다. 고사리나 솔이끼와 같은 고생대 식물이 화면 아래 솟아 있고, 자그마한 관목의 나뭇가지와 웅이가 있는 수령 많은 나무의 잎과 가지가 가운데 있는 주인공과 연결되어 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숲속의 빈터, 즉 'clearing(die Lichtung)'을 가리켜 진리(aletheia)라고 이야기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진리는 은폐된 무언가의 드러남이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존재는 독립된 개별자가 아니라(非獨存), 타자와 함께 만든 관계의 총체라는 것이다. 숲속의 빈터는 나무와 풀과 대지와 공기와 빛이 함께 만든 관계이다. 화면에서 주인공은 숲속의 빈터에서 두 손으로 구리를 긁어모으고 있다. 두 손에 긁힌 대지에 남은, 상처와 같은 흔적은 문명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화가의 호흡〉

2023

캔버스에 유채
80.3x65.1cm

현란(絢爛)한 색채의 숲속에서 화가는 나뭇등걸에 기대어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있다. 왼손은 아래로 편히 내려놓은 채 상념에 잠겨있다. 화면의 주인공은 화가가 가상으로 만든 인물이거니와 화가 자신이기도 하다. 화가의 호흡은 운동으로 가볍게 내쉬고 들이쉬는 종류가 아니라 차분하며 느리고 깊다. 이러한 호흡의 예로 프네우마(pneuma), 혹은 프뉴마라는 개념이 있다. 프네우마는 '숨', 혹은 '호흡'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로서 정신, 영혼(spirit)을 의미하기도 한다. 압박감과 긴장감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상처를 입고 지쳐가며 때로는 소진되기도 한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치유와 안정을 갈망한다. 세계(우주)는 하느님(신, 우주의 원리)의 프네우마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사물(萬物)은 하나로 연결되며 하나로 귀결된다. 화가(예술가)는 프네우마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박광수의 회화는 좋은 작품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낸다. 박광수 작가의 회화 표면은 평면으로 보이면서도 미묘하게 원근의 느낌이 살아있다. 이것이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작가만의 불가사의한 화면 구성이다.



〈구리와 손〉

2023

캔버스에 유채
259.1x93.9cm

이번 전시회의 표제작이다. 박광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 작가답게 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세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과 형식이기도 하거니와 동서양 회화의 장점이 압축되기 때문이다. 박광수는 눈부시고도 유려한 필선의 드로잉과 회화를 구축해왔다. 서구 회화의 토대가 면(面)의 축적에 있다면, 우리 회화는 필선(線)의 기운생동을 추구했던 역사 속에서 발전했다. 박광수는 독자적인 회화형식을 구축하면서 그 안에 화가 자신이 겪었던 진솔한 경험과 세계에 대한 관점, 정서, 갈망을 표현한다. 박광수의 작품 속에는 원초적인 필선과 고도로 계산된 구도 사이의 긴장, 부분과 전체의 파격과 조화, 걱정과 안정의 교차, 내용과 형식 사이에 오가는 긴장 등 하나의 화면에서 읽어낼 요소가 무한하다. <구리와 손>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생긴 괴리감, 부조화, 모순, 소외에서 괴로워하는 화가의 자의식을 대변한다. 동시에 이를 극복하여야 하는 근원적 태도로서의 천지일신론(天地一身論)과 같은 사유를 제시한다. 자연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며, 이는 박광수의 회화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서로 회통(回通)한다.

모래 한 알 속에서 세계와 마주하며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들꽃 하나에서 천국을 만날지어니 And a Heaven in a Wild Flower,
손바닥에 무한(無限)을 움켜쥐고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찰나(刹那)에서 영원을 느낄지어다. And Eternity in an hour.

4. 작가 소개

박광수는 198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다. 2008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금호미술관(서울), 인사미술공간(서울), 두산갤러리(뉴욕, 서울), 신한갤러리(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꿈에》(2023, 주홍공한국문화원, 홍콩), 제 3회 제주비엔날레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2022,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제 21회 송은미술대상전》(2021, 송은, 서울), 《빈지 워칭; 14284"》(2021, 경기도미술관, 안산), 《금호영아티스트: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2019, 금호미술관, 서울), 《가능한 최선의 세계》(2019,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북쪽의 숲》(2018, RX 갤러리, 파리, 프랑스), 《디지털아트: 도시 풍경》(2015,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등이 있다. 두산레지던시 뉴욕,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 인천아트플랫폼 등 주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 5회 종근당 예술지상, 제 7회 두산연강예술상을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고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리와 손

이현경 | 신한갤러리 큐레이터

관념의 숲: 사라지는/소멸하는 변화의 잔상들

《구리와 손》은 불가항력적인 사라짐과 소멸의 흐름 아래 놓여 있는 대상과 풍경을 그려왔던 작가가 오랜 시간 작업하며 수행적으로 걸어온 시간의 궤적들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작가는 만드는/만들어지는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자신의 작업과 연결 지으며 주로 유채색으로 시각화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전시명 《구리와 손》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의외의 조합인 두 단어 '구리'와 '손'을 빌어 현재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작업 방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선택된 단어들로 이는 그의 작업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인간이 다룬 가장 오래된 금속 물질인 구리는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인류 발전에 일조한 물질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너른 시간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오래전부터 조각 등 창작의 재료로 쓰였다. 한편 손은 예술가에게 있어 구상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이자 실질적으로 창조물을 구현해 내는 행위의 주체를 상징한다. 이는 최근 작가가 이야기하는 '만드는 자와 만들어진 자' 개념과 연결되며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 시 [학교재 제공] 표기 부탁드립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부수는 성취와 실패의 과정들이 기존 '사라짐과 소멸'의 맥락과 같은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무채색의 무수한 선들로 밀도 있게 숲의 세계를 담았던 박광수는 2021 년 <따뜻한 만들기> 작업을 시초로 유화를 주 매체로 하여 색이 담긴 풍경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펜의 굵기, 압력, 속도 등을 달리하며 채색된 작품들은 작가가 실험해 왔던 시간만큼 선들을 세밀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쌓아 올리며 이번 개인전 주요 작업으로 선보인다. 박광수는 전시 공간과 캔버스 크기에 비례해 시간과 도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신이 줄곧 사용하던 펜에서 벗어나 직접 만든 수제 펜을 사용한 드로잉, 회화와 애니메이션 등의 작업을 한다. 작업 과정에서 그는 도구의 발전을 모색하는 인류의 모습처럼 작업에 용이하게 펜을 새롭게 정비하고 물질적 속성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작업 방식을 다변화한다. 작가에게 변화된 재료는 그것의 속성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이었으리라.

이번 전시 대부분의 작품은 기존에 작가가 주로 사용했던 먹, 잉크, 아크릴 등과 달리 유화로 작업 되었다. 작가가 유화를 대하는 태도는 흥미로운데, 작가는 물감이 굳는 시간 동안 마지점토와 같이 유연한 상태의 재료를 주무르듯 선이 그어진 뒤 또 다른 궤적들을 그리며 선을 겹치고 굵어 파내고 없애 화면 안에서 공간감과 납작한 부피감을 만들며 빠르게 선들을 세우거나 무너뜨린다. 이는 《기대는 그림》(2020)에서 <덩어리> 시리즈를 그리며 주로 사용한 오일 스틱의 쉽게 물렁물렁해지고 녹아 흘러내리는 물성과도 연결된다.

작가는 물감이 굳기 전 색과 선의 움직임은 감각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결정한다. 작가의 움직임은 곧 선으로 이어지고 선들은 좀 더 즉각적인 변화를 야기하며 때론 배경이 때론 형상이 때론 존재의 부분 혹은 전체가 된다. 이처럼 박광수의 작업 속 생동하는 선과 색들은 새로운 형태와 공간을 창출해 나가며 연결점을 갖고 움직임의 궤적들을 화면에 고스란히 쌓는다.

형상과 배경의 경계는 허물어지더라도 비교적 정확한 선이 중첩된 형태와 그 궤적들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업했던 이전과 달리 채 마르지 않은 물감의 색들은 이후 생성된 선들에 의해 지워지고 색과 색은 뒤섞여 다른 색이 창조되기도 하며 의외성을 기반으로 한 충돌과 긴장감을 만들어 소란스럽게 발광한다. 색 그리고 풍경은 그렇게 관계 지어지고 변화의 감각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사라지거나 드러나는 풍경들을 만든다. 이처럼 작가는 재료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며 숲의 세계를 이루는 선과 색들을 만들어 내고 이미지들을 불연속적으로 이어 붙인다. 이런 박광수의 작업은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을지언정 추상화와 구상화, 풍경화와 인물화, 일상과 공상 등 언뜻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들 사이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우리가 무심코 범주화했던 고정 관념에서 탈중심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박광수의 작업에는 항상 숲이 자리한다. 작가에게 숲은 자신의 내면을 담고 있는 공간이자 무수한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의 작업은 시간의 흐름을 내포하지만 실재의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 시 [학고재 제공] 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성과는 요원(遙遠)하며 불연속적인 내면의 시간 안에 작가의 몸짓과 떨림이 반영된 무수한 개체들이 '어두운 숲'을 헤매듯 켜켜이 쌓이고, 수많은 선의 궤적은 마치 이 환영의 공간에서 미지의 생명력을 가지고 일순간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광수가 그리는 풍경에서 생동하는 선들은 존재를 포함하여 모두 불완전한 형상과 배경이 중첩되며 사라지고 드러나는 변화의 상태를 시각화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새로운 변화들이 파생되는 흐름 아래 있다. 풍경은 그렇게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세계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념의 숲 자체로 그 세계 안에서 불안하게 꿈틀대며 확장해 가고 있다.

구리와 손: 만드는/만들어진 덩어리

《워킹 인 더 다크》(2014)부터 박광수의 작업에는 꾸준히 숲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형상이 등장한다. 존재는 작가의 의식과 무의식, 상상과 현실이 뒤섞여 만들어진 불완전한 시공간에서 작가가 창조한 불연속적 시간성을 내포하며 풍경 속 요소와 색들을 머금고 있다. 과거 작가는 소멸이나 사라짐에 집중하며 이러한 불가항력적 불안의 상태를 어둠 속 사라지는 인물의 뒷모습(<검은 숲속>(2014~)), 희미한 얼굴(<부스러진>(2017~)) 등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물은 배경과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작업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경계가 모호한 인물들도 있지만 인물의 크기, 연령, 표정 등 다변화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인물과 배경의 경계가 좀 더 뚜렷하게 구분돼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풍경 안의 불가항력적인 상태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인다. 이전 인물들은 자신이 처한 가혹한 상황에 대해 주로 관망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이번 전시 작품 속 존재 대부분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관찰, 모색하는 등 자신의 상황을 수긍하는 한편 무언가를 구상하고 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단단한 기둥 같은 두 손을 이용하여 흙을 긁어모으거나(<작은 산>(2023)), 손에 쥔 돌을 관찰하고(<에메랄드>(2023)), 나무껍질을 뜯고 있다(<껍질>(2023)). 이처럼 박광수의 그림 속 인물들은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실패를 예감할지언정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따뜻한 만들기>(2021) 작업에 대해 박광수는 "그림 안에는 불완전한 덩어리와 그것을 정성스레 쓰다듬으며 만드는 또 다른 덩어리인 인간이 등장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만드는 자, 만들어진 자 모두를 '덩어리'로 통칭하며 작가가 이 둘의 관계를 표현하며 파생되는 여러 의미들을 내포한다. 한편 불완전한 덩어리는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연상시키며 불완전한 상태의 덩어리이기에 무언가로 명명되기 위해 형성되어 가는 과정 혹은 이후 마주하게 될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펜 드로잉 시리즈 100 여 점 원본과 271 점을 모아 만든 작품집을 전시한 개인전 《크래커》(2021) 역시 작업에 수많은 덩어리가 등장하는데 작가에게 검은색의 덩어리는 가득 차거나 비어 있는 등 중의적 상태로서 상상의 실마리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그는 <망치질>(2021),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 시 [학고재 제공] 표기 부탁드립니다.

<코 만들기>(2021) 등 만드는 행위와 관련된 작업들도 꾸준히 선보였다. 그렇다면 작가에게 있어 '만드는 행위'는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 그의 인터뷰 내용을 빌어 추측해 보자면 '무언가를 품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우리는 소중한 무언가가 생기면 가슴 속에 품고 계속 쓰다듬고 바라보며 어루만지곤 한다. 그림 속 대상들 역시 신체의 몸짓을 통해 무언가를 만지거나 감각한다. 이때 손은 대상과의 교감과 더불어 촉각적 감각을 야기하는 중요한 신체적 요소이다. 창작의 발상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결국 그것을 만들고 부수고 다시 세워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일까. 그의 그림 속 인물의 손은 유독 크고 정성스레 묘사되어 있다.

<구리머리>(2023)에서 인물은 손으로 머리 형상을 감싸 안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투명한 몸체를 가진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자는 붉은 구리색(Iridescent Copper) 물감으로 눈, 코, 입을 갖추고 자신을 만든 자를 응시하는 듯하다. 그렇게 시점이 교차되고 주체와 객체가 전복되며 이는 시공간성이 파편화되어 뒤섞여 있는 작가의 풍경과 연동된다. 마치 "방금 만들어진 듯한 열감이 있는 인간의 형상"처럼 느껴진다. 이 작품을 그리기 전 작은 크기의 캔버스에 비슷한 구도와 느낌으로 그려진 작품에는 그저 구리 덩어리처럼 보였는데 <구리머리>(2023)에서는 구리 덩어리를 매만져 살갓이 만들어진 듯한 느낌과 좀 더 또렷한 이목구비를 갖춘 두상의 형체를 띄고 있다. 작가에게 존재는 작가 자신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는 감각과 정서들을 기반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에 대응하며 긴 시간성을 담고 움직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像)을 은유한다. 작가는 그렇게 만드는 자, 만들어진 자에 대한 사유와 동시에 보다 근원적으로 창작에 대해 사유하며 존재를 둘러싼 고민과 너른 생각들로 작업을 이어간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표출하고자 하는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이번 전시에는 가장 큰 작업이자 전시명과 동일한 <구리와 손>(2023)이 있다. 불연속적인 시공간에서 인물은 몸의 일부분이 배경과 동화되며 시간성을 투영한 듯 그대로 투과되어 보인다. 작가는 "이제까지 그린 그림에 나오는 모든 만드는 행위들의 결과물 같은 존재"라고 했다. 둔덕 위 마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소진된 듯한 텅 빈 표정으로 서 있는 자는 자신의 얼굴보다도 큰 거칠고 투박한 손과 발에 무언가가 잔뜩 묻어 있다. 존재가 발 딛고 있는 시공간이 비록 소멸되고 사라지더라도 인물의 손, 발에 묻어 있는 실제 구리 안료의 흔적들은 물질 그 자체가 실재하고 있었음을, 그리하여 결국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인 물질과 그 존재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듯하다.

오래전 《맨 온 필로우》(2012) 연계 인터뷰에서 작가는 "드로잉은 모르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 냅킨 위에 그린 약도와 같다."라고 말했다. 드로잉은 작가에게 창작 과정을 내포하며 빠르게 날 것의 것들을 기록, 수집하는 원초적 행위이다. 이후로도 박광수는 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드로잉을 지속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작업의 외연을 확장해 가고 있는 박광수에게 드로잉은 여전히 수많은 선으로 이미지를 더듬어 가며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 시 [학고재 제공] 표기 부탁드립니다.

담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방향키가 되어준다. 이처럼 작가는 자신만의 지형도를 그려가며 지도 속을 걸어가는 여정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예술 행위에 대한 가치를 긍정하며 그는 방향키의 무게중심을 내부에 정박시켜 단단한 태도로 창작의 여정을 이어 나갈 것이다.

6. 작가 노트

내가 자란 곳에서는 마른 식물이 타는 냄새가 났다.

논과 밭이 많았던 마을의 사람들은 가을을 지나 겨울 끝 무렵 다음 농사를 위해 곡식을 수확하고 남은 벼단이나 마른 식물들을 논, 밭두렁과 함께 태우는 일을 했다.

그들은 불이 멀리 번지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불을 놓았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 젓고 마르기를 반복한 식물이 타는 냄새는 흙, 해충, 그들의 마음과 섞여서 더 넓고 진하게 마을을 가득 채웠다. 찬 바람과 함께 밀려오는 연기의 깊고 어두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던 기억이 있다.

- 내 그림 속 풍경은 주로 자연의 원초적인 상태로 확정되지 않은 채 꿈틀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모습은 세계의 시작과 끝이 맞닿은 지점 어딘가의 순간처럼 보인다. 그림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그곳에서 긴 시간성이 신체화된 형상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그림에 등장하는 대상들은 많은 경우 본인이 처한 가혹한 상황을 감내해 내고 있다. 그 끝은 대부분 실패인데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림에서 색들이 총만하게 매혹적이기도 위협적이기도 하며 서로 간의 강렬한 충돌로 그 세계가 극단적이길 원한다.

- 나의 그림은 많은 경우 이편과 저편으로 형상과 영역이 정확히 나뉘어 있지 않고 서로에 관여하고 침투하고 파편화되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일렁이며 빛나는 물 표면의 잔상, 음습한 음식물 쓰레기 더미나 파헤쳐진 동물의 장기처럼 물과 습기에 관심이 간다.

- 물감의 모든 색을 섞었을 때 검은색이 되는 점을 좋아한다. 반대로 검은색을 해체하면 잘게 부서지듯이 많은 색이 나올 것 같다는 시적인 상상을 해본다.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 시 [학고재 제공] 표기 부탁드립니다.

- 물감을 사러 갔을 때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다."라는 색이 있다. 주로 빛나는 광물이나 이상한 식물을 연상케 하는 색들이 나에게 그렇다. 걷다가 마음에 드는 작은 돌을 발견하고 집어 드는 순간과 매우 비슷하다.

- 내가 좋아하는 물감 중에 Iridescent Copper라는 이름의 물감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여 그린 존재들은 방금 만들어진 열감이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구리는 인간이 다룬 가장 오래된 금속이다. 과거의 생활과 신화에서부터 현대의 산업과 디지털 환경까지 이어져 이 세계에 널리 퍼져있다는 점에서 구리가 가진 시간성과 보편성이 좋았다. 나에게 구리는 금속 자체라기보다 만드는 자와 만들어진 자의 관계에 대한 상징이자 은유로 다가온다.

- 캔버스에 불완전하게 맺혀있는 색들이 좋다. 그것은 온전히 개체를 지정하는 고정점을 만들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교차하며 색이 산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거친, 다듬어지지 않는, 막 나온 듯한, 눈부신 잔해의 파편들을 불연속적으로 이어 붙인다.

- 내 그림에 등장하는 대상은 많은 경우 이 상황을 뒤엎고 싶은 욕망과 두려움이 충돌하고 있다. 상이 무너지고 깨지는 건 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아주 잘 전달해 주는 표현법이다. 과거부터 써온 나의 작업 노트를 보면 불안과 절망, 좌절의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나는 확실하게 큰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다. 중얼거리고 머뭇거리며 겨우 작은 용기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매번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모습에 균열을 내어 약진하거나 약진에 실패하여 다시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오곤 한다. 내 그림에 인물은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보편성을 추적해 보고 싶다.

7. 작가 약력

박광수

1984 강원도 철원 출생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학력

20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졸업
200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졸업

개인전

2023 구리와 손, 학교재, 서울
2021 크래커, 카다로그, 서울
2019 영영 없으리, 학교재, 서울
2018 훔날리는,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미국
2017 부스러진, 두산갤러리, 서울
2016 좀 더 어두운 숲, 금호미술관, 서울
2015 검은 바람, 모닥불 그리고 북소리, 신한갤러리, 서울
2014 워킹 인 더 다크,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2013 반허공,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2 맨 온 필로우, 인사미술공간, 서울
2011 2001 어 스페이스 콜로니, 갤러리비원, 서울

주요 단체전

2023 꿈에, 주홍공한국문화원, 홍콩
사루비아 기금마련전시,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2022 제 3 회 제주비엔날레: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살갓들, 학교재, 서울
하우 데이 워크, 에브리아트, 서울
언박싱 프로젝트: 오늘,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사루비아 기금마련전시,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2021 제21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서울
진동하는 숲, 또 하나의 그림자, 페이지룸8, 서울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 시 [학교재 제공] 표기 부탁드립니다.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오채찬란 모노크롬 -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 비엔날레 3관
유달초등학교(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목포
- 빈지 워칭; 14284", 경기도미술관, 안산
- 비록 춤 일지라도, 코스모40, 인천
- 돈 세이 어 워드,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 문인사 기획전 6: 김훈, 여기에서 나는 산다,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38°C, 학교재, 서울
- 2020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 덕수궁, 서울
- 창원조각비엔날레 특별전 2: 그리고 둘만 남았다, 성산아트홀, 창원
- 기대는 그림, 누크갤러리, 서울
- 동그라미에게, 의외의조합, 서울
-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 대림미술관, 서울
- 2019 칸 퍼레이드 2019: 칸쏘네 - 타고난 버라이어티, 탈영역우정국, 서울
- 가능한 최선의 세계,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 예테보리국제도서전: 67개의 밤, 스웨덴 전시.회의센터, 예테보리, 스웨덴
- 프리뷰, 학교재, 서울
- 금호영아티스트: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 금호미술관, 서울
- 디엠지, 문화역서울284, 서울
- 코끼리, 그림자, 바람, 경기도미술관, 안산
- 회화의 시간: 종근당 예술지상 역대 선정작가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 기초조형연구 I, 일우스페이스, 서울
- 2018 북쪽의 숲, RX갤러리, 파리, 프랑스
- 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 2017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인간 X 기계 시스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광주
- B컷 드로잉, 금호미술관, 서울
- 메모리 트릴로지, 갤러리 플래닛, 서울
- 난지아트쇼 I: 20면체 분광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16 백야행성, 합정지구, 서울
- 블랙, 더 정글, 스페이스K, 대구
- 트윈 픽스, 하이트컬렉션, 서울
- 장소와 각주, 금천예술공장, 서울
- 더 애니메이션 쇼,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 불명열, 갤러리175, 서울
- 삼키기 힘든, 두산갤러리, 서울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 시 [학교재 제공] 표기 부탁드립니다.

- 우드컷팅, 가변크기, 서울
- 2015 홍성, 답다: 얼굴, 초상, 군상, 이응노의 집, 홍성
디지털아트: 도시 풍경,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어쩌다보니, 애니메이션,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회화 - 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미술관, 파주
우주는 대체로 텅 비어있다,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서울
페르소나, 갤러리 그림손, 서울
- 2014 살아있는 밤의 산책자, 지금여기, 서울
걷기, 리듬의 발견, AK갤러리, 수원
오늘의 살롱 2015, 커먼센터, 서울
아르코아카이브 프로젝트 1: 뉴 아카이브 매터리얼스,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아카이브, 서울
- 2013 2013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공중시간, 성곡미술관, 서울
제5회 오프 앤 프리 국제확장영화예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어린이 미디어아트 체험 —미디어+놀이터, 트라이블, 인천
I=EYE, 키미아트, 서울
플랫폼 액세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2 우민극장 2012 만국박람회, 우민아트센터, 청주
점령,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0 이해를 향한 오해, 송원아트센터, 서울
1+1, 짐 프로젝트, 서울
- 2009 광화문, 상상, 세종문화회관 광화랑, 서울
가변크기 2, 보다갤러리, 서울
가변크기 1, 토포하우스, 서울
- 2008 씨네 포럼 4: 디지털 포트폴리오 – 6가지의 시각,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언 이디엇 워드 어 비디오 카메라 vol. 1, 갤러리 안단테, 서울

주요 프로젝트

- 2017 혁오 정규 1집 앨범 『23』 타이틀곡 〈툼보이〉 뮤직비디오 제작
2012 홍승혜 개인전: 광장사각, 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협업)

레지던시

- 2018 두산레지던시, 뉴욕, 미국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 시 [학고재 제공] 표기 부탁드립니다.

- 2017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15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14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13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인천
- 2012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수상

- 2016 제7회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아트센터, 서울
- 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종근당, 서울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
-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서울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경기도미술관, 안산